달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늘 그랬듯이.

“덕질하면서 쉬어요. ‘걸스데이’에 4년 동안, 이후엔 ‘여자친구’를 6년 동안 덕질했어요. 최근엔 ‘이달의 소녀’의 팬이 되었습니다. 멤버 한 명에 꽂히면 그 멤버에 대해 깊게 알아보고, 그러고 나면 다른 멤버의 매력을 발견하는 식으로 꾸준히 덕질합니다. ‘여자친구’의 경우엔 중학교 때 같은 방송부였던 제 첫사랑이 점심시간에 ‘오늘부터 우리는’ 노래를 틀어줬던 걸 계기로 덕질하게 되었던 거로 기억해요.“

“저는 42를 만나게 된 것을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개발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희망과 달리 건축공학과에 진학해야 했습니다. 원치 않는 학과에서 1년을 보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하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공부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막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시험공부 하러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 42 포스터가 딱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개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었고, 덕질을 하는 만큼 서울에서 살고 싶었는데 운명처럼 발견한 기회였죠.”

“42에서 진행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덕질이 밥 먹여준다(덕밥)’ 프로젝트에요. 20명 가까운 인원으로 팀을 꾸렸지만 기술과 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실패했었죠. 이후에 개인적으로 ‘지적 덕후 공동체(지덕체)’ 프로젝트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사업으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아이돌 문화 중 하나인 ‘비공식 굿즈’ 판매를 합법적으로 중계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팬들이 사랑으로 높은 퀄리티의 굿즈를 만들었음에도 겪는 저작권, 세금 그리고 홍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실 개발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꿨던 오랜 꿈이고 지금도 꾸고 있는 꿈이지만, 방송, 공연 분야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지 고민해보다가 이 분야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실제로 학생 때부터 방송부 활동을 하거나 축제 기획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왔습니다. 특히 축제 때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었던 것이 무척 재밌었던 기억이라 아직도 이쪽 분야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어요. 언젠가 방송, 공연 쪽에서도 단기적으로라도 일을 해보고 싶어요.”

“MBTI 검사 유형은 ENFJ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즉흥적인 P에 속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사람을 대할 때는 좀 즉흥적인데 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획적이다.’라고요. 그래서인지 언제쯤 무얼 해야겠다는 계획이 착착 쌓여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하루가 금방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위기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누워있다가도 ‘팍!’하고 일어나서 무작정 학습하고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거죠.”

“제 인간관계는 정규분포표를 뒤집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깊은 내면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소수가 있고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다수가 있죠. 주변 사람들은 놀라는데 의외로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강한 편이에요. 사람을 좋아하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인생 최대 목표에요. 사람들이 모두 현실을 핑계로 삼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을 도와주고 싶고,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세 가지 가치관을 따르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항상 좇는다’와 ‘옳다고 믿는 것을 실현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팔에 타투로 새겨놓은 ‘Run, as always do’입니다. 물리적으로 달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언제나 제 목표를 위해 달리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

[2차]

달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덕질하면서 쉬어요. ‘걸스데이’에 4년 동안, 이후엔 ‘여자친구’를 6년 동안 덕질했어요. 최근엔 ‘이달의 소녀’의 팬이 되었습니다. 멤버 한 명에 꽂히면 깊게 파보고, 그러고 나면 다른 멤버를 깊게 파보는 식으로 덕질합니다. ‘여자친구’의 경우엔 중학교 때 같은 방송부였던 제 첫사랑이 점심시간에 ‘오늘부터 우리는’ 노래를 틀어줬던 걸 계기로 덕질하게 되었던 거로 기억해요.“

“사실 개발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꿨던 오랜 꿈이고 지금도 꾸고 있는 꿈이지만, 방송, 공연 분야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보다가 이 분야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실제로 학생 때부터 방송부 활동을 하거나 축제 기획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왔습니다. 특히 축제 때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이쪽 분야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어요. 언젠가 방송, 공연 쪽에서도 단기적으로라도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42를 만나게 된 것을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개발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희망과 달리 건축공학과에 진학해야 했습니다. 원치 않는 학과에서 1년을 보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하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공부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막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시험공부 하러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왼쪽을 봤을 때 학교 게시판에 42 포스터가 딱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개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었고, 덕질을 하는 만큼 서울에서 살고 싶었는데 운명처럼 발견한 기회였죠.”

“42에서 진행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덕질이 밥 먹여준다(이하 덕밥)’ 프로젝트에요. 20명 가까운 인원으로 팀을 꾸렸지만 기술과 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실패했었죠. 이후에 개인적으로 ‘지적 덕후 공동체(이하 지덕체)’ 프로젝트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돌 문화 중 하나인 ‘비공식 굿즈’ 판매를 합법적으로 중계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팬들이 사랑으로 높은 퀄리티의 굿즈를 만들었음에도 겪는 저작권, 세금 그리고 홍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MBTI 검사 유형은 ENFJ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즉흥적인 P에 속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사람을 대할 때는 좀 즉흥적인데 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획적이다.’라고요. 그래서인지 언제쯤 무얼 해야겠다는 계획이 착착 쌓여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하루가 금방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위기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누워있다가도 ‘팍!’하고 일어나서 무작정 학습하고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거죠.”

“제 인간관계는 정규분포표를 뒤집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깊은 내면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소수가 있고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다수가 있죠. 주변 사람들은 놀라는데 의외로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강한 편이에요. 사람을 좋아하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인생 최대 목표에요. 사람들이 모두 현실을 핑계로 삼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을 도와주고 싶고,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세 가지 가치관을 따르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항상 좇는다’와 ‘옳다고 믿는 것을 실현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팔에 타투로 새겨놓은 ‘Run as always do’입니다. 물리적으로 달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언제나 제 목표를 위해 달리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

[1차]

“덕질하면서 쉬어요. ‘걸스데이’에 4년 동안, 이후엔 ‘여자친구’를 6년 동안 덕질했어요. 최근엔 ‘이달의 소녀’의 팬이 되었습니다. 멤버 한 명에 꽂히면 깊게 파보고, 그러고나면 다른 멤버를 깊게 파보는 식으로 덕질합니다. ‘여자친구’의 경우엔 중학교 때 같은 방송부였던 제 첫사랑이 점심시간에 ‘오늘부터 우리는’ 노래를 틀어줬던걸 계기로 덕질하게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가면서 반에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저도 질투가 나서 비주얼 베이직을 배우고 개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개발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꿨던 오랜 꿈이고 지금도 꾸고 있는 꿈이지만, 방송, 공연 분야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보다가 이 분야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실제로 학생 때부터 방송부 활동을 하거나 축제 기획운영 등에 적극 참가해왔습니다. 특히 축제 때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이 쪽 분야를 완전히 포기 하진 않았어요. 언젠가 방송, 공연 쪽에서도 단기적으로라도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42를 만나게 된 것을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개발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희망과 달리 건축공학과에 진학해야 했습니다. 원치 않는 학과에서 1년을 보내고 ‘내가 지금 뭘하고 있지’하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공부에 미친듯이 몰두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막 놀러다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시험공부하러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왼쪽을 봤을 때 학교 게시판에 42 포스터가 딱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개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었고, 덕질을 하는 만큼 서울에서 살고 싶었는데 운명처럼 발견한 기회였죠.”

“42에서는 안 하던 개발을 하니 재밌어요. 물론 피씬에선 생각한만큼 실용적인 무언가를 만드는게 아니었고, 코로나로 인해 본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때 지루할 때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웹 개발의 진짜 참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프로덕트를 만드는 쪽이 기술을 파는 쪽보다 재밌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엔 자바스크립트를 깊게 공부하면서 기술을 파는 쪽에도 흥미가 생기고 있습니다.”

“42에서 진행했던 첫번째 프로젝트는 ‘덕질이 밥 먹여준다(이하 덕밥)’ 프로젝트에요. 20명 가까운 인원으로 팀을 꾸렸지만 기술과 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실패했었죠. 이후에 개인적으로 ‘지적 덕후 공동체(이하 지덕체)’ 프로젝트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돌 문화 중 하나인 ‘비공식 굿즈’ 판매를 합법적으로 중계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팬들이 사랑으로 높은 퀄리티의 굿즈를 만들었음에도 겪는 저작권, 세금 그리고 홍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비활동성과 활동성이 주기적으로 번갈아 강해지곤 해요. 덕밥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슬럼프에 빠져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도, 대학교 1학년 때처럼 ‘내가 지금 뭘하고 있지’하는 위기감이 들면, ‘팍!’ 하고 일어나서 무작정 강의를 듣고 코드를 짜서 ‘지덕체’를 만들어내는 식이에요.”

“MBTI 검사 유형은 ENFJ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즉흥적인 P에 속하는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사람을 대할 때는 좀 즉흥적인데 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획적이다.’라고요. 그래서인지 언제쯤 무얼해야겠다는 계획이 착착 쌓여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하루가 금방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나 지금 뭐하고 있지’라는 위기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누워있다가도 ‘팍!’하고 일어나서 무작정 학습하고 프로젝트를 구현하는거죠. ‘지덕체’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덕체’를 완성하고 나니까 ‘안 될게 뭐 있어’하는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아직 많이 미흡하고 개선해야할 점이 많지만 웹 개발에 대해 아예 모르던 제가 한달 반만에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했으니까요. 또 제가 깨달은 웹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나를 믿으면 안된다’에요. 너무 완벽하게 동작할 것 같이 보이는 코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꼭 생기더라고요.”

“42를 하면서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와 진로를 확실히 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생 때는 진취적이었는데 입시 실패 등으로 다소 우유부단하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진취적인 사람으로 조금이나마 끌어올려진 것 같아요. 내 삶에 책임을 지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인간관계는 정규분포표를 뒤집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깊은 내면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소수가 있고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다수가 있죠. 주변 사람들은 놀라는데 의외로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강한 편이에요. 사람을 좋아하지만, 너무 자기 중심적이며 타인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먼저 미래를 상상을 해봐요. 선택했을 때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와 그에 따른 비용을 판단하려합니다. 결과적으로 덜 후회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든 만족할 것들 사이에서 고민하는게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일단 선택하고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혹시 후회가 생기더라도 어차피 그 당시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알고, 그저 운명이었겠지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인생 최대 목표에요. 사람들이 모두 현실을 핑계로 삼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을 도와주고 싶고,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세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항상 좇는다’와 ‘옳다고 믿는 것을 실현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팔에 타투로 새겨놓은 ‘Run as always do’입니다. 물리적으로 달리는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제 목표를 위해 달리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